

# '덧글조작·후보 수행비서 폭행' 평화당, 전남서 민주당 맹공

영암·무안·신안 재선거 잡음 비판 등 총공세

조배숙 "정권 여성관 다시 생각... 탁현민 해임"

민주당 지도부가 전남을 찾아 덧글조작, 구청장 예비후보 폭행,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잡음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평화당은 25일 전남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제3차 선대위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조배숙 대표는 "지난 23일 야 3당이 올림픽기간 휴전했듯이 남북정상회담 주간 정쟁을 자제하자는 선언을 했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한마디만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성권씨가 수행비서를 성추행하려다가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고 옷을 찢는 폭행을 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추행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니 안희정

사건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4년간 보좌관을 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인물"이라며 "정권핵심의 여성관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탁현민 행정관도 아직 곁에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탁 행정관이 견제하는 한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윗사람 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는 '상행하효'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모범을 보이고 탁 행정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주 전남도당 위원장은 덧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은 수사의 ABC에 해당하는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화 아직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금 출처 수사 역시 진척이 없다"고 비난했

다. 이어 "김 의원 자신도 받겠다고 하고 청와대도 원칙적 수용의사를 밝힌 특검을 여당인 민주당만 막무가내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결과발표를 보류한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과정의 잡음도 비판했다. 그는 노인들의 생년월일이 열거되고 '국회의원-서삼석'이라고 적힌 쪽지를 공개하며, 서 후보 측이 전화를 대신 받아 투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진 상임 선대위원장은 "평화당이 제대로 뛰어야, (정당)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호남이 발전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를 남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같은 확실한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덧글수사·방송법 등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문제를 앞장서 제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근산 기자

■ 이색후보

## 아나운서 출신 광주시의원 도전

김학실 "광산 주민들 심부름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



그의 아련한 추억을 애정자들은 기억한다. 특히 광주·전남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 선정되면서 제2의 인생을 후배를 양성하는 아나운서 아카데미 원장으로 살아가다가 광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김 예비후보는 "광산 주민들의 심부름꾼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광산지킴이가 되겠다"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지난 30년간 방송인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만큼 앞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광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밀며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광산3선거구(비야, 첨단1·2, 하남, 임곡)에 도전하는 김학실 예비후보자는

KBC광주방송 전 아나운서 출신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남부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광주시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8시 뉴스 앵커, 각종 TV프로그램 MC와 KBC광주방송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김학실의 추억찾기'를 15년간 진행하면서 구수한 목소리로 1970-80년대 아날로그

## "촛불정신으로 혁신교육 완성"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3선 도전' 공식 선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에 성공해 혁신교육으로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교실혁명'을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오는 5월 1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황애란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6·13지방선거에 출마,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장 교육감은 25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에 성공해 혁신교육으로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교실혁명'을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 8년은 쉽지 않았지만 혁신교육을 밀어 올려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고 시민 모두가 광주교육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었다"며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선도했고,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해 배움중심 교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정책은 지난 8년 동안 광주교육이 추진한 혁신교육과 같다"며 "교육대개혁은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이며, 광주의 힘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는 교실' 완성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등 핵심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 ▲보편적 교육복지 ▲광주다운 교육 ▲입시경쟁교육 혁파 ▲학교업무 정상화 통해 교사 교육활동 전념 ▲안전한 학교 ▲남북 교육교류 실시 ▲비정규직 없는 학교 현장 등을 약속했다. 장 교육감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사회 각 분야는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교육에서는 학벌중심 사회, 이윤중심 사회를 유지하려는 거센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앞으로의 4년은 지난 60년 동안 이어져 온 교육제폐를 청산할 기회이며, 경험 많은 장휘국이 그 일을 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 민주, 광주 서갑 재선거 박혜자-송갑석 '경선'

27~28일 실시...전략공천설 반발에 선회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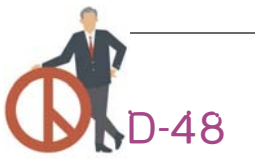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서갑 재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박혜자 전 의원과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경선을 실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광주 서구갑 재보선

후보자를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내 반발로 경선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광주 서구갑 재보선 경선에 선 권리당원 대상 조사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17곳의 후보를 확정할 민주당은 재보선 지역구 공천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강병운 기자

민주당은 현재까지 재보선 지역 11곳 중 서울 송파를(최재성)·노원병(김성환)·부산 해운대(윤준호)·충남 천안갑(이규희) 등 4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광주 서구갑 경선이 27-28일 실시되고, 경선결과 발표를 보류한 울산 북구와 영암·무안·신안 역시 이르면 오는 27일 후보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병운 기자



### 6·13 지방선거 레이다



#### 이용섭 "남북정상회담, 평화·번영·통일 전환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4월 27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했다. 이 후보는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개최한 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에 참석, "65년간 이어진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시켜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며 "정상회담의 변화국면에서 우리는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서대석, 남북 정상회담 민족 미래 '활짝'



서대석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정상회담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평화의 시대로 전환돼 우리 민족이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며 "나아가 미·중이 참여한 4개국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 권오봉, 무소속 출마 선언... "시민 섬기는 시정"



권오봉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경선이 끝났지만 많은 시민이 여수의 현안을 풀어 나가고 미래를 헤쳐 나가기 위해 행정·경제분야 전문성을 갖춘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며 "무소속 출마가 정치신인에게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수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낼 여수시장은 무엇보다 청렴하고 전문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을 섬기는 깨끗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허석 "잡음 털고 화합과 단결로 함께 본선승리"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25일 "경선과정의 잡음을 털고 화합과 단결로 본선 승리를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를 바라는 순천시민들의 열망이 하나로 모인 덕분에 승리한 것 같다"면서 "순천을 순천답게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든 것"이라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경선 상대후보였던 조중훈 예비후보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를 전하고 당의 본선승리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단결로 민주당의 승리, 위대한 순천시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 송갑석 "광주시민과 당원의 힘으로 경선 쟁취"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선이 확정된 것과 관련, "민주당 최고위는 분노한 광주의 민심을 받아 들었다"면서 "광주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이며,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 17일 공관위의 전략공천설 의견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 시민들과 당원들은 납득할만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스스로

의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것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목소리를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지지를 표명해주신 시민·당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며 "그 동안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 경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명진 "광주 수영대회 북한팀 참가토록 해야"



김명진 민주당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역사적 전환점이 찾아 올 것이다"며 "광주시도 이에 부응해 오는 2019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팀을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며 "광주시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하

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는 물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광주시도 국민적 염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철 기자

#### 오인성 "창의성·인성교육으로 미래교육 대비"



오인성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무안남야 도청프라자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선거필승을 다짐했다. 오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 지식들을 서로 모아서 자기만의 문제를 만들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으로 자기 먹거리를 찾아내는 교육을 하

겠다"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에너지벨리 조성에 맞춰 에너지 관련 학교를 신설하거나 특성화고 관련 학교를 만들어 지역과 교육이 함께 가는 '전남형 교육'을 펼쳐 지역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고석규 "교육감 권한 이양... 학교 자율성 강화"



고석규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모두의 꿈을 키워 주는 맞춤형교육을 위해 교육감 권한이양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단위학교에서 특수성·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행정을 실시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성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이를 위해 ▲권한이양을 위한 조례제정 ▲초빙교사 비용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비율 확대 등 세 가지 세부시책을 제시했다. /황애란 기자